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간호학적 측면에 대한 고찰

정 면 숙¹⁾

I.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화의 추세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 등 많은 수의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다문화 가정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과거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자랑하던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다문화주의 시대로 이행되는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이후로 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반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게 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란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그 밖의 외국인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김범수, 2008). 이들은 서로 다른 이주 목적과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각각의 유형이나 특성이 고려되기보다는 대체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하나의 이름아래 정책이나 연구가 추진되어왔다(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사업단, 2006).

다문화 사회란 시민/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말하며 다문화 주의는 이를 견인해 가는 이념이다(김혜순, 2008). 다문화 정책은 한 사회내의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의미한다(윤인진, 2008).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급격하게 제기된 배경은 산업의 발전과 국내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함께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의 남성들이 중국 조선족이나 저소득국가인 동남아의 여성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형성된 결혼 이민자 가정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으며,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히 국제 결혼율이 증가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에 이르렀다. 다문화가정은 이민 당사자가 가진 언어의 한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사회적 적응이 어렵고 사회적 편견과 법적·제도적 차별, 가족갈등, 가족 해체 등의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1)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경상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 노인건강연구센터 연구원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형성하고 가족해체를 가속화 시켜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가족 정책에 대한 기본 시각을 가족단위의 사전적·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 대상의 서비스는 대부분이 결혼이민자 개인단위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가족단위의 서비스 지원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관련 연구 또한 다문화 가족의 특성, 정책분석, 사회적응 등과 관련된 가족분석 등이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서 가족부양, 가족기능,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복지 실태 및 욕구 등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김유경 외, 2008).

특히 다문화 가정과 연계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이민 여성으로서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따르게 되고, 이는 결혼이민여성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다문화 사회의 실현을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 여성가족부는 2006년 51개소의 시군구 단위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건강관리를 많은 부분 책임져야 할 보건소의 실무차원에서는 활발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안양희, 2008).

또한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이나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방 부처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간호학적 관점에서의 활동 및 연구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다문화 정책의 현황 및 보건의료·간호학계의 활동과 연구의 실증적 분석

정부는 2008년 12월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의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을 심의·의결 하였다. 또한 외국인 정책의 비전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 등 4대 정책 목표와,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원, 외국인 권익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13개 주요 과제 등을 발표했다. 즉, 여기서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은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의 확립 등이다. 이러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외국인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08. 12).

이처럼 국제화와 세계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2009년 7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4만 4,385명(전년대비13.7% 증가)이며, 이중 여성이 12만 7,683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5만 8,007명이며, 이중 초·중고 재학생이 1만 8,769명(32.4%)에 이른다(통계청, 2009).

또한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 건수는 2000년에는 11,605건, 2003년 24,776건, 2005년 42,356건, 2007년 37,560건, 2008년 36,204건으로서 2008년까지도 2000년에 비하여 약 3.6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1).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의 수는 2000년에 비해 약 3배 정도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사회문제화가 되었다.

2000년 210,249명이 보고된 이후 해마다 증가

세를 보여 2006년말 631,219명을 기록해서 2000년 대비 약 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2).

한편 새터민이란 북한 이탈 주민, 즉 탈북자를 말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때 귀순주민,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로 썼던 것을 새롭게 순우리말로 고친 것이다. 탈북자도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되고 있어서 이미 우리 사회 안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탈북인구의 유입은 2000년 312명에서 2008년 2,809 명으로 약 9배가 증가되었다. 특히 1990년대의 탈북자들은 주로 남성이 많았으나 2002년부터 변화가 나타나서 2002년 당시 총 1138명의 탈북자중 남성이 506명(44.5%), 여성이 632명(66.5%)으로, 이때부터 여성 탈북자가 남성보다 많아지기 시작해서 2008년 총 2809명중 남성이 612명(21.8%), 여성이 2,197명(78.2%)으로 여성 탈북자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 > 우리나라 국제결혼 총 건수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건수	11,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자료: 통계청(2009)

< 표 2 > 우리나라 등록외국인 추이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등록외국인 (장기체류)	210,249	229,648	252,457	437,954	468,875	485,144	631,219

자료: 통계청(2008). 한국의 사회지표

< 표 3 > 북한 이탈 주민 입국자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남자	179	294	506	469	626	423	509	570	612
여자	133	289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합계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자료: 통계청(2009)

(통계청, 2009: 통일부자료). 따라서 이념이 전혀 다른 곳에서 성장해서 새롭게 남한으로 귀순한 새터민들도 소외계층의 한 부류로서 받아들여져,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영하, 2008; 표 3).

다문화 가족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사회문화적 부적응, 사회적 편견, 법적·제도적 차별,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의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다.

김유경 등(2008)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형성하고 가속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시급한 사회문제 대두가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결혼이민자 개인 단위로 제공되는 추세를 좀 더 가족단위의 서비스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관련 연구도 다문화 가족의 특성, 정책분석, 사회적응 등과 관련된 가족분석 등이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서 가족부양, 가족기능,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복지 실태 및 욕구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 다문화 가정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현황

1) 중앙부처의 다문화 가정 관련 보건의료 정책 및 활동

정부는 다문화 정책의 목표를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의 구현’으로, 시민단체는 ‘이주민이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 받으며 내국인과 이주민이 더불어 살아감’을 그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의 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

체가 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도 자체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합법적 외국인(합법적 단기 체류 외국인, 국제결혼 이민영성, 다문화 가족 자녀, 귀화 외국인, 난민)에 국한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합법적 외국인은 물론이고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체 외국인의 1/4가량을 차지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배제되어 있는 점, 정부 부처간 중복투자와 단기적 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문제 또한 이러한 문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윤인진, 2008).

중앙부처의 다문화 정책 업무는 크게 법무부, 문화 체육 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여성부 등에서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주로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 가족과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 가족과에서 주관하는 활동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원,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 가족 사회 통합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정과 운영,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의 시책 추진, 다문화 가족 관련 조사, 연구 및 실태 조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다국어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이주여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김혜순 외, 2009). 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 업무는 다음과 같다(표 4).

주민 관련 사업 중 여성 결혼 이민 가족관련 정부 정책은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이 되었다. 특히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약 17만 명, 국내거주 외국인의 약 13%)에 집중되어 있고 보건복지 가족부

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의 핵심과제는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방지 및 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체류 지원, 한국 사회의 조기 정착 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

응 지원, 생활안정 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업무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5).

< 표 4 >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업무의 내용

부처 및 부서	업무내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다문화의 이해증진에 관한 시책 외국인의 등록, 체류자격 부여, 변경 및 연장허가 외국인의 근무처 추가, 변경 및 재입국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이주노동자 문화적 지원 사업 추진 외국인 노동자·결혼 이민 여성 대상 언어교실 운영 다문화사회 문화 환경 조성 이민자 문화 활동,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원 다문화 사회 이해증진 홍보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원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의 시책 추진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다국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이주여성 전문 인력 양성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지자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추진 다문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시책 지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촉진 방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추진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인적자원개발 학부모 및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고용 관리 외국인력 제도의 전반적 관리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여성부 권익기획과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 보호·지원

자료 : 김혜순(2009)에서 재인용

< 표 5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정부계획

비 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 사회 실현			
기본방향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제	주요내용	조치사항	주관 부서	협력 기관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방지 및 결혼당사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률 제정 - 사증발급 심사강화 - 이주 전 건강관리체계 구축 	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법무부	경찰청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복지부	
		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경찰청
		결혼비자 발급서류·절차 표준화	법무부	외교부
		외교채널을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외교부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여가부	복지부 외교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체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제도 개선 (쉼터나 시민단체 확인인정)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망 구축 (전용쉼터 설치, 종사자 언어교육, 인식교육)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 시 입증요건 완화	법무부	
		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		
한국사회의 조기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한국문화교육 실시 (방송교육, 지역단위 교육 실시, 교재개발, 사전발간) - 단계별 정착지원 (입국 전 한국어해교육, 정착초기 가족 내 상호문화이해증진교육, 국가별 커뮤니티 형성 등) 	한국생활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여가부	법무부 행자부 정통부 지자체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여가부	문화부 교육부 농림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 학교의 다문화교육 기능강화 - 집단따돌림 예방 	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기능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부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부	교육부

정책과제	주요내용	조치사항	주관 부서	협력 기관
생활안정 지원강화	- 기초생활보장 위한 제도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복지부	여가부
	- 저소득층 모자보건 서비스, 보건서비스 지원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복지부	여가부 농림부
	- 취업지원 (취업상담, 사회적 일자리 대상에 포함, 다문화인력으로 양성·활용)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	노동부	
사회적 인식 개선	- on/off-line 홍보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여가부 법무부	
	- 정책관계자 및 서비스 인력 다문화 교육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문화부	교육부 행자부 지자체
	- 지역사회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공무원교육 실시	인사위 여가부 법무부	전 부처 지자체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농림부	
업무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행자부 교육부
	- 주관부처 지정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지자체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상담·교육인력 양성	여가부 복지부	
	- 통계, 인력 등 인프라 구축	법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지방정부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		

자료: 심인선 외(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핵심과제 중에서 보건의료 관련 사업은 위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사업’에 해당이 되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저 소득층 모자보건 서비스, 보건 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등이다. 이를 보다 세분화해서 보면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자녀 출산 및 건강증진 지원 등으로 나뉜다(심인선 외, 2008).

2) 지방 부처의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및 현황(경상남도의 예)

경남지역 20개 시·군의 지원 사업 대상은 크게 거주 외국인 전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농촌 총각 등이다.

거주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으로는 행사 및 축제, 교육사업,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생활안내서 제작 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지원 사업 역시 행사 및 축제, 한글 및 문화 교육, 인권 교육,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이중 의료·복지 서비스는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창원, 진주), 무료급식행사

(창원), 외국인 컴퓨터 운영(창원) 등의 구체적 활동이 보고되고 있다.

결혼 이민자 대상의 활동 중 보건의료 서비스 부분은 결혼 이민자 가정방문 건강관리, 가임기 여성 건강 증진 및 임신부 관리사업(진주), 불임부부지원·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풍진 검사 사업, 출산 장려지원금(남해), 외국인 이주 여성 영유아 예방 접종 교육(합천) 등이 있다(이정석, 2008). 외국인 근로자 대상보다는 결혼 이민자 대상의 활동이 보다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표 6).

보다 상세하게 시나 군별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 자녀양육 교육 30명(사천시, 500만원),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80명(고성군, 120만원), 외국인 임신부 초음파 검진비 60명(360만원), 결혼 이민자 가족 무료 진료소(함안), 외국인 여성 무료 건강검진, 결혼 이주 여성 무료 풍진 검사 및 예방접종 등(함양군)이 있다(심인선 외, 2008; 표 7).

< 표 6 > 경남 20개 시·군 2008년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현황(2008.3.31)

지원 대상	시책 분류	시 책 명
거주 외국인 전체	행사 및 축제	세계인의 날 행사(사천·남해)·명절행사(김해·거제)·거주외국인 어울림한마당(진해)·외국인한마음축제(사천)
	교육 사업	한글교실(거제)·문화교실(거창)·정보화교육(사천)
	의료 서비스	외국인 무료건강검진(마산·고성)
	생활안내서 제작	거주외국인 생활안내서 제작(창원·김해·남해·하동)
	기타	원어민강사 관리(거창)
외국인 근로자	행사 및 축제	외국인근로자 위한 한마음 행사(진주)·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한마음큰잔치(김해)·아시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어깨동무(양산)·명절행사·송년행사(창원)·여름캠프(창원·양산)·농구대회(창원)·미니월드컵(거제)·노동절창립기념행사
	한글 및 문화교육	외국인 한글학당 운영(창원)·한글 및 문화 교육프로그램(김해)·이주노동자한글교실(양산)

지원 대상	시책 분류	시 책 명
외국인 근로자	인권 교육	노동 및 인권교육(창원)·시민인권대학(창원)·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위한 인권교육(양산)·이주노동자 노동법·산재예방 교실(양산)
	의료·복지서비스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창원·진주)·무료급식행사(창원)·외국인 컴퓨터 운영(창원)
	기타	국적별 외국인근로자모임(김해)
가족 지원 사업	가족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진주·김해·밀양·양산·거창)·결혼이민자가족 지원(거제)·결혼이민자가족 복지지원(진주·진해·김해·밀양·양산·고성·남해·함양)·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진주·김해·밀양·양산·함양)·다문화가정 교부간 가족문화 형성교육(산청)
	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 사업	한글교실(창원·통영·산청)·한글 및 문화교실(하동·합천)·한글 및 전통예절교육(함안)·한글교육 및 요리실습(마산)·다문화체험교육(의령)·정보화교육(거제)·사랑나누기교육(창녕)·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사천)·사랑방모임·온 누리 통합 교실(마산)·하나둥지학교(거제)·온 누리 학교(창녕)·전통사찰 탐방(거제)·외국인여성 문화유적지 탐방(합천)
	찾아 가는 서비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진주·김해·밀양·양산·함양)·찾아가는 한글교실(창원·마산·합천)·자녀방문 한국어학습지원(창원·진해·통영·의령·함안·함양)·방문 한국어교사 지원(진주·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고성·거창)·결혼이민자 가정방문 교육 도우미 봉사활동(창원)
결혼 이민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및 원어민강사 양성사업(창원·마산·진주·진해·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의령·고성·함양·거창)
	의료서비스	결혼이민자 가정방문 건강관리·가임기여성건강증진 및 임신부관리사업(진주)·불임부부지원·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임산부 영양제 지원·임산부 풍진검사 사업·출산장려금지원(남해)·외국인 이주여성 영유아예방접종 교육 실시(합천)
	이주여성 농업인지원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사천)·이주여성농업인 지원(밀양·함양·거창)·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창원·함안)·귀화여성농업인 정착지원(사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창원·진주·진해·사천·김해·밀양·양산·의령·함양)·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결연사업(창녕)
	행사 및 축제	결혼이민자 가족캠프(창원·양산)·여성주간기념행사(창녕)·다문화가정 사랑발견 프로젝트 평등부부캠프·이주여성 한글교실 여름캠프(산청)
	기타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김해·의령)·여성결혼이민자 결혼기념일 축하 메신저 사업(밀양)·국제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합천)·건강가정 구현과 자원봉사활동설명회(창녕)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가정·농촌다문화가정 지원(마산)·다문화가정 자녀양육교육(사천) 행사 및 축제 다문화가정축제(창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천·거제·양산·고성)·농촌총각 장가보내기(남해)·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하동)	

자료: 이정석(2008)

< 표 7 > 2008년도 경상남도 시·군 여성결혼이민자 자체사업내용

시군명	사업명	대상	예산	시군명	사업명	대상	예산
창원시	가정방문 교육도우미 파견	20세대	3,000	거제시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240명	6,520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1000명	11,000		결혼이민자와 생활요리 만들기	50명	1,000
	전통생활 문화체험	30명	2,000		결혼이민자 전통음식 전수회	50명	1,000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교실	10명	1,000	양산시	국제결혼가정 가족캠프	50명	5,000
	한국어교실	10명	1,000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100명	12,000
마산시	여성회관 결혼이민자 한글교육	20명	5,500	의령군	국제결혼이민자 가족만남추진	3쌍	12,000
	여성회관 결혼이민자를 위한 명절음식 만들기	30명	400		외국인 입산부 초음파 검진비	60명	3,600
	소외계층 위한 무료검진	40명	600	함안군	결혼이민자가정과 6급이상 공무원 간 결연		
	농촌 결혼이민자가정 한국생활 적응교육	30명	500		결혼이민자 가족 무료 진료소		
진주시	한국음식만들기	50명	16,000	창녕군	여성결혼이민자새가족 사랑사업	80명	3,000
	우리문화 현장체험	100명	20,000	고성군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80명	1,200
	가족과 함께하는 아내 나라의 문화이해	300명	20,000	남해군	국제결혼이주여성 생활문화 교육	30명	1,000
통영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10,000	하동군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60명	28,000
	결혼이민자 내고장 역사문화탐방		7,000		다문화가정 합동혼례	5쌍	6,000
사천시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교육	30명	5,000		다문화가정 부부평등 교육	80명	4,000
김해시	외국인 아내 친정나들이	4쌍	7,200	산청군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60명	16,810
밀양시	사랑의 메신저 사업	300세대	1,000	함양군	외국인 여성 무료 건강검진		
	여성결혼이민자 방문한국어 파견가정 교재지원	15세대	600		결혼이주여성 무료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함천군	외국인여성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탐방	85명	4,000
					여성단체와 국제결혼여성 경연	165명	7,500
시군 자체사업 총예산				224,430			

2. 다문화 가정의 보건의료 관련 선행 연구
박대식, 최경은(2008) 등은 농촌의 다문화 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에서 남편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안내’(56.3%), ‘진료시 의사소통 도움’(46.0%), ‘육아지식 제공’(26.8%), ‘전염병, 질병 예방 지식 제공’(22.5%), 유아 건강검진(21.5%) 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대식, 최경은, 2008; 그림 1).

심인선 등(2008)은 경남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연구에서 여성 이민자들에게 출산 및 진료 지원,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여성 결혼 이민자는 임신 후 출산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임신, 출산, 질병관련 한국어 용어집 발간이 필요하며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산부인과 협력 병원을 지정하고, 중·대형 병원은 지역사회 서비스 차원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성배우자의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예비 결혼 교실 참여활성화, 부부캠프 참여, 아버지 교실 참여, 임신과 육아교실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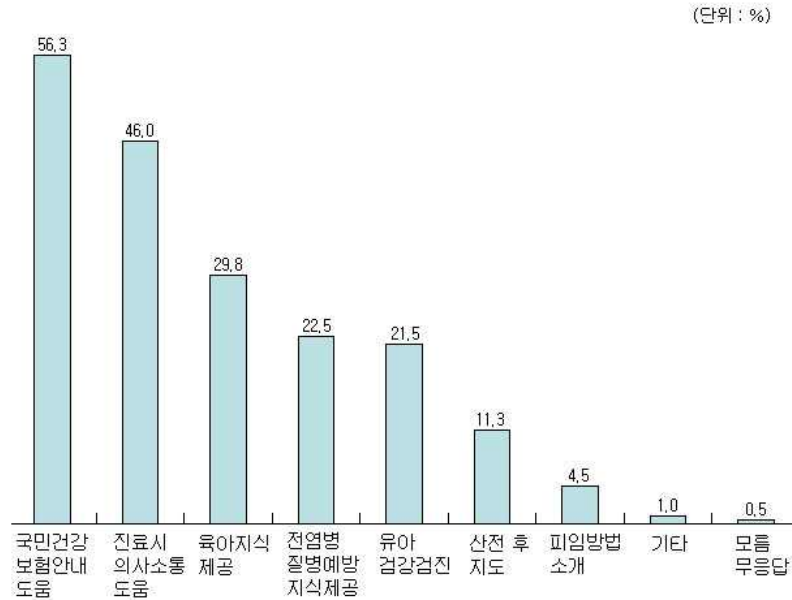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통합지원 방안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의료기관과의 협약, 진료시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등을 들었다(그림 2).

정부에서는 2004년 8월부터 노동인력 관리 측면에서 건강보험제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흡수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허가제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사회보장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47.6%가 정부의 건강관리 정책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

고 있어서 불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길상, 2005). 이러한 결과는 박대식, 최경은(2008)등이 실시한 결혼이민 가정의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들이 희망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내용이 직접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보다는 국민건강보험 안내(56.3%)로 나타난 것과 맥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감소와 사업장의 생산성 감소, 기타 가정과괴는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에 파급이 되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건강관리 및 의료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비싼 진료비와 소통의 어려움들을 이유로 조기치유 및 예방 노력을 하지 않아서 병을 크게 키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설동훈,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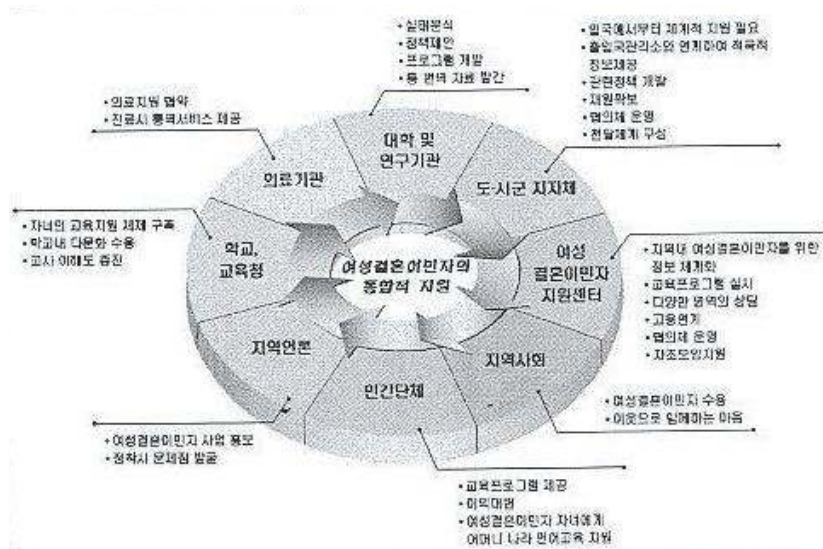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가족 구성원들은 언어 장애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어 사용 능력이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서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한국어를 잘 하고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우울 수준이 낮다는 김은정(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은자(2002)는 서울 시내 소재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2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대상자들은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비싼 의료비를 들었는데 이는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근골격계(35.6%), 소화기계(2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무료진료소



자료: 박대식, 최경은(2008)

그림 1. 이주민이 원하는 보건의료, 건강 관련 서비스



자료: 심인선 외(2009)

그림 2. 지역사회 의 주체별 역할

(43.6%), 약국(39.2%)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무료 진료소를 찾은 경우임을 감안하더라도 보건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을 보다 쉽게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사업단의 보고서(2006)에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비싼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산업안전보건법상 권리보호 체계 미흡, 이주 노동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주 노동자 건강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재, 무료 진료소의 인력과 재정 부족, 일반 병의원 이주 노동자 진료관련 정보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3.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간호학계의 활동 및 연구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간호학계의 대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전자 도서관, 간호협회, 간호신문, 간호학회지 등을 통해 2001년부터 최근까지의 다문화 관련 자료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다문화 가정, 새터민, 탈북자,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가정, 여성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의 8가지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검색을 통해서 밝혀진 간호협회와 간호학회의 활동 및 학문적 연구나 출판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대한간호협회 차원의 활동

다음은 2005년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표 8 > 간호계의 다문화 관련 활동 및 기사(2001~ 2009.12)

일시	제목	활동 및 내용	출처	주최	관련내용 기타
2001. 11.1	미래의 물결: 다문화적·전인적 건강관리 전략	국제학술대회	간협신문	계명대학교 간호과학 연구소	미국, 인도, 스웨덴, 사우디, 타이완, 중국 등 8개국 300여명 참가
2007. 10.24	국제 결혼 이주 가정 건강 지킴이	혈압및 혈당 측정 건강 지킴이	간협신문	전남간호사회	전남 여성단체협의회 주최 ‘다문화 가정, 가족 한마음 대축제’에 참가, 국제결혼 이주가정 가족 1200명에게 혈압, 혈당 체크, 건강달력 배포
2008. 5.21	다문화 가족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체육대회	체육대회	간협신문	부산간호사회	제37회 국제간호사의날 기념행사로 다문화 가족 대상 체육대회
2008. 6.4	다문화 가족 건강상담	건강상담	간협신문	전남간호사회	전남 여성단체협의회가 개최한 다문화 가정, 가족 한마음 대축제에 참가해서 건강교육과 상담 등 봉사활동
2008. 8.27	다문화가정 방문	가정방문 및 고충 나눔	간협신문	경북간호사회	가정방문 건강상담
2008. 11.5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지원방안마련-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생애주기별 지원방안 신문기사	간협신문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교육및 상담 전국 시도 간호사회에서 적극 나서 대한간호협회 시도 간호사회에서는 여성

지 최근 5년간 대한 간호협회 활동과 간호협회 신문을 통해 제시된 다문화 사회 관련 활동 내용이다(표 8).

2) 간호학계의 다문화 관련 연구 및 출판활동
학위논문, 학술지나 학술활동에 발표된 연구나 출판활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 새터민,

< 표 8 > 간호계의 다문화 관련 활동 및 기사(2001~ 2009.12) (계속)

일시	제목	활동 및 내용	출처	주최	관련내용 기타
2009. 1.7	경남 간호사회 다문화 가족 돕기	경남 간호사회 다문화 가족 방문	간호사신문	경남간호사회	경남 가호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집 방문 위로 및 건강상담
2009. 3.3	결혼 이주여성 53% 임신중 건강교육 받아-모유수유 80%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중 건강교육 및 모유수유, 기타 건강관련 자료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임신중 건강교육 53%, 모유수유 80% 매우 높아
2009. 7.8	부산시 간호사회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교육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건강교육	간협신문	부산간호사회	부산시 간호사회에서 제 7회 간호봉사 대장정의 일환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2일간 실시
2009. 6.10	자원봉사활동 간호대학생 프로그램 선정	간호대학생 주도의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간협신문	여성부 지원	여성부주최 전국 대학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된 89개 프로그램 중 간호학과 주도의 11개 프로그램 소개
2009. 8.12	전국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 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주도로 15만 3000명의 전국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관련기사	간협신문	보건복지 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매 3년마다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결혼이민자 전수조사임
2009. 8.26	경계를 허물어라 변화를 주도하라 통섭의 시대 간호 경쟁력 높이기	병원간호사회 주최 간호부서장 워크숍 특강 내용	간협신문	병원간호사회	최재천 교수는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로서 고령화, 여성의 시대, 질병을 변화시킬 기후 변화, 다민족과 다문화를 제시함
2009. 9.9	경남 간호사회 다문화 가정 건강교육	다문화 가정 정신건강교육	간협신문	경남간호사회 간호봉사단,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봉사단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120명 대상의 가정내 갈등과 스트레스 대처법교육
2009. 11.4	진주시 간호사회 다문화 가정 성금	진주시 간호사회에서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돕기성금을 진주시에 전달	간협신문	진주간호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10 가구에 지원
2009. 11.11	간협,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건강교육	간협,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건강교육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주최	간협신문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대한간호협회, 대한 치과의사협회, 대한 의사협회, 대한 한의사 협회가 연대해서 2008년 11월 발족시킨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 본부 주최 행사

탈북자,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가정, 여성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의 8가지 검색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였다. 검색결과 연구논문 11편, 출판물 2편으로 총 13편이 검색되었으며 연구논문 11편을 전수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이 10편(76.9%)이었으며 용어는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어머니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밖에 새터민 대상의 연구가 1편(박성숙, 2006),

외국인 근로자 대상 연구 1편(박소연, 2009), 농어촌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 대상 연구 1편(안효자, 2008)으로 총 11편의 연구 중 대부분이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의 연구로 나타났다.

연구의 종류는 학위논문이 총 7편(53.8%)으로 석사 학위 논문이 5편, 박사학위 논문이 2편이었다. 학회지 게재논문이 총 4편(30.8%)이었으며, 간호협회 지부에서 발행한 출판물이 2편(15.4%) 발표되었다.

< 표 9 > 간호학계의 다문화 관련 연구 및 출판 동향

번호	연구자 (발표년도)	제목	유형	대상/ 연구설계	게재지 또는 발행처
1	박성숙 (2006)	광주·전남지역 새터민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관한 연구	논문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새터민 110명/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연아 (2008)	결혼 이민 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산전 간호 이행의 관계	논문	결혼 이민여성/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김미중 김태임 권윤정(2008)	여성 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 행위와 피임에 관한 연구	논문	여성결혼이민자 /조사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4권 4호
4	박윤지 (2008)	일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대전, 충청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논문	여성결혼이민자 /조사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안양희 (2008)	일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논문	여성결혼이민자 /조사연구	한국보건의간호학회지 제22권 제1호
6	안양희 (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건강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논문	여성결혼이민자 /유사실험연구	한국보건의간호학회지 제22권 제2호
7	안효자 (2008)	일개 시 농어촌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논문	농어촌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조사연구	한국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4호
8	정남옥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행위 예측모형	논문	여성결혼이민자 /조사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김지현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논문	다문화가정 어머니 /유사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박소연 (2009)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전인건강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논문	외국인 근로자/ 유사 실험 연구	고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이국희 (2009)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논문	결혼이민여성 /조사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최영순 (200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건강관리 가이드	출판물	여성 결혼 이민자	충북간호사회
13	우영자 (2007)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임신부 가이드	출판물	여성결혼이민자	부산간호사회

연구설계는 출판물을 제외한 총 11편의 연구중 3편(27.3%)이 유사실험 연구이었고 나머지 8편(72.7%)이 조사연구로 나타났다(표 9).

Ⅲ. 결론 및 제언 : 다문화 정책에 대한 간호학의 역할

다문화 가정에서의 건강의 정의는 '다문화 가족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건강권을 보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이주기구(IOM)에서도 이주민, 난민들의 국제적 이주 노동의 교류 증가 등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졌으므로 사회적인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이주민들의 제반 건강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산재 보험 개혁,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홍보, 교육책자 비치 및 근로상담 핫라인 설치, 건강 기록과 건강위험평가 입력 시스템에 근거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이주민들의 개인생활양식 요인과 질환의 개선을 위해 다국어 대조 문진표 제작 및 배포, 의료기관 매뉴얼 개발 및 발표, 출신국 사회의 보건의료 실태와 질병 원인조사, 만성질환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료기관 교육프로그램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사업단, 2006).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의 건강 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을 2009년 7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방안으로서 학교의 지원강화, 대학생 멘토링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교사의 역량강화,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다문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전환, 지역 인적 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다문화 가정 지원프로그램 활성화를 들고 있다(김우정, 2006). 이러한 기틀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을 전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끌어 들이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협회나 간호대학(또는 학과)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다문화 관련 이슈들은 대부분 건강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에 비해서 지금까지의 간호계 활동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이슈인 만큼 대상자와 함께하는 건강전문가로서의 간호 활동을 널리 알리고 이미지 증진을 꾀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특히 간호협회와 대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활동을 통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차원의 간호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계획되고 수행될 경우 좋은 반응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의 학문적 발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구는 실무를 이끌어가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야하므로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기반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간호학 연구는 총 11편에 그쳐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연구논문 중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이

10편(76.9%), 탈북자 관련 연구 1편, 농어촌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 대상 연구 1편, 외국인 근로자 대상 연구 1편으로 연구 대상자가 지나치게 여성 결혼 이민자 중심으로 치우쳐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이민 여성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족의 가장, 청소년이나 가족, 탈북자 가족 등 연구 대상자의 다양화를 꾀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설계 측면에서 보면 11편(100%) 모두 양적연구가 이루어져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대상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질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간호학은 대한간호협회라는 거대한 실무 기반의 간호사 조직과 전체 175개 대학(4년제 104개, 3년제 71개)을 기반으로 한 실무와 학문적 측면의 건강전문가들이 결집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학문이므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폭넓은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간호학은 전국의 병원 및 학교,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인적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실무 인력 및 연구 인력, 학생인력 등의 풍부한 인적 자원이 준비된 영역이므로 향후 간호계가 추진 가능한 다문화 관련 건강관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1) 보건복지 가족부와의 협력 속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체계 확립
: 간호협회, 대학, 보건소, 시청, 병원과의 협력적 체계 구축
- 2) 간호협회와 대학이 연계된 주도적인 자체 이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건강수준 평가와 체계적 관리프로그램 점검 및 확립

- 이주민 가족 지원 사업과 대학생 멘토링 사업 연계,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질병의 조기발견, 만성질환 관리 등

- 이주민 대상의 보건의료 사업관련 이벤트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무료 건강검진, 건강 교육, 임산부 산전 프로그램, 부부공동 참여 대학 인증 건강 교육 프로그램, 기타 부부캠프 등 개발

- 3) 대학의 학점 인장과 연계해서 간호 협회나 대학 차원의 봉사 서비스에 간호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봉사 프로그램 개발
- 4) 다문화 가정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별 교육책자 개발(중국, 베트남, 러시아, 태국 등)

이상과 같이 다양한 사업이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중에서 건강관련 분야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건강한 생활이 시작되는 핵심적인 사업이므로 간호계는 대한 간호협회와 한국간호과학회, 간호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다문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인적자원이나 시설면에서 이들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충분히 주도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되어서 원활한 사업의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간호계의 홍보나 이미지 증진에도 좋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1. 고재광(2009).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실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008.12.17). 외국인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3. 김미중, 김태임, 권윤정(2008). 여성 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 행위와 피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4).
4. 김범수(2008).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5. 김연아(2008). 결혼 이민 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산전간호 이행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영하(2008). 새터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 *21세기정치학회보*, 18(2).
7. 김우정(2006).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방안.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 문화연구.
8. 김유경 외(2008).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연구-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김은정(2001).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김지현(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김형수. 한국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발행.
12.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
13. 김혜순 외(2009). 달서구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 구상.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연구보고서. 계명대학교 다문화사회 연구 및 교육센터.
14. 박대식, 최경은(2008). 농촌의 다문화 가정 실태와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박성숙(2006). 광주·전남지역 새터민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박소연(2009).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전인건강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고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 박윤지(2008). 일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대전, 충청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사업단(2006).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체계적 관리 방안.
19. 설동훈(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의 상호작용. *노동문제논집*, 13-31.
20. 심인선 외(2008). 경남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1. 안양희(2008). 일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1).
22. 안양희(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건강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2).
23. 안효자(2008). 일개 시 농어촌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간호학회*, 17(4).
24. 우영자(2007).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임신부 가이드. 부산광역시간호사회.
25.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26. 이국희(2009).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 이성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해. 호남신학대 목회전문대학원 발행, 목회신학 전공.
 28. 이은자(200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 이정석(2008).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현안연구 2008-1.
 30. 정남옥(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 행위 예측모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 최영순(200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건강관리 가이드. 충청북도간호사회.

Abstract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ealthcare-related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from nursing's point of view

Myunsook Jung¹⁾

This research examines, based on nursing's point of view,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healthcare-related multi-cultural policy which is one of the major issues of contemporary Korea. Today, Korean society is facing a drastic increase of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for migration in Korea that leads to the transition to multiculturalism. Each field of society is providing prevalent supports to solve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promote adoption to Korean society. The activities and research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nursing area were found and analyzed - 11 researches and 2 books were published. Among these 13 publications, 10 were on the marriage with immigrant women. 8 researches out of 11 (72.7%) were defined as the descriptive surveys, and 3 researches (27.3%) were defined as quasi-experimental studies. Although Korea Nurses Association (KNA) led various activities, more researches and activities by nurses and nursing scholars are required to contribute in improving the health of multicultural families.

1) RN, PhD,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erontological Health Research Center, Institute of Heal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